

경건한 생활의 연습

만남

특집 / 감사

11
1999
310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만남의 층점



월드비전 국제이사들이 9월 15일 영락교회를 방문,
한경직 원로목사에게 창설 공로패를 전달했다.

온라인 예배

새벽기도회	새벽 5:30~6:00
주일 1부예배	오전 7:00~8:1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10: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12:45
주일 4부예배	오후 1:30~2:45
주일 5부예배	오후 3:00~4:15
주일 저녁예배	오후 5:00~6:15
국제예배	오후 8:00~4:30
탁아부	오전 9:30~2:30
유아 1·2·3·4부	오전 9:30~2:30
유치 1·2·3·4부	오전 9:30~2:30
유·초·소년 1부예배	오전 9:30~11:00
유·초·소년 2부예배	오전 11:30~13:00
사랑부예배	오전 9:30~11:00
중등 1부예배	오전 9:30~11:00
중등 2부예배	오전 11:30~13:00
고등부예배	오전 8:30~11:00
대학부예배	오후 1:30~3:00
젊은이예배	오후 1:00~
청년부성경공부	오후 1:30~4:00
수요 1부 기도회	오전 10:30~11:30
수요 2부 기도회	오후 7:00~8:15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8:30~10:30

영락교회 | 월 1차



서울 중구 저동2가 69
전화 02)2273-6301

만남

표어 : 경건한 생활의 연습

통권 310호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1.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2.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3.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4.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 실현

■ 4 대목표

- (1) 교육
- (2) 성도의 교제
- (3) 선교
- (4) 봉사

1999년 11월호 통권 310호
발 행 / 1999. 10. 15
발행인겸 편집인 / 이철신
주 간 / 김성배
발행처 /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100-032 서울 중구 저동2가 69
전화/2273-6301 팩스/2267-9388
편집디자인 / 뷰에드디자인
(549-3033)
인쇄 / 우림문화사(859-4462)



■ 표지설명

제 24회 당회세미나가 지난 달 30일
열렸다.

이달의 말씀 / 감사하는 생활습관 – 이철신	2
좌담회 / 무엇으로 감사할까?	4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추석맞아 영락보리원과 영락애니아의집 방문	9
회고한다 / 초창기 영락교회에 도움을 준 애국지사 백영엽 목사 – 이창로	10
감사한 일들 / 감사할 일들이 너무도 많은 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 이동범	12
'99 선교대회	14
사회봉사부, 선교부 / 캄보디아에 선교물품 보내기	16
목회자 칼럼 / 가장 아름다운 결실 – 배성식	18
선교봉사 보고 /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와서 – 조건진	20
선교기행 / 중앙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 이원도	22
인터넷 선교 / 제 1회 인터넷 해외 선교 봉사 – 서상연	24
기관탐방 / 대광학교를 찾아서	26
교회에서 바른 국어사용(10) / 가정에서의 오침 – 장소원	29
전도자 노트 / 열심과 열심 – 진영종	30
문화칼럼 / 새 천년, 교회와 문화 – 박용범	32
지회소식 / 순종하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 이순자	34
나도 한마디 / 준비하는 마음은 정성을 다하여 – 경재숙	35
삶의 현장 / 미국에서 만난 하나님 – 이명숙	36
교회소식	38

감사하는 생활습관



이 철 신 담임목사

래를 삶은 다음, 찬 냉천에 헹구곤 합니다. 이 광경을 보던 여행자가 안내하던 멕시코인 친구에게 “너무나 편리하군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혜택을 너무나 많이 입고 있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멕시코인 친구는 “이곳 사람들은 찬 물과 더운 물만 있고, 정작 빨래에 꼭 필요한 비누가 없다”면서 불평을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말씀, 1994.6).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만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아니하여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멕시코의 어떤 지역에서는 뜨거운 물과 찬 물이 나란히 발견된다 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현상 때문에 그 지역의 여인들은 빨래를 수월하게 한다고 합니다. 빨래를 가지고 냇가로 가지고 와서 뜨거운 온천에 빨

어떠한 환경에서나,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감사하는 생활습관을 가지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의 죽음에서 건짐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옥가서 영원히 멀망받아 마땅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나쁜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음식이 맛없다고 불평하고, 옷이 시원치 않다고 불평하고, 집이 불편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가장 큰 감사”에 비한다면, 음식이나 옷이나 집 때문에 오는 작은 불편은 결코 불평할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잘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쁜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홍수 심판의 상황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이 불편하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불쾌지수가 높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방주

안에 저장된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짐승들과 함께 있어서 냄새가 너무 난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동안이나 밖에서 운동도 못하고 간혀 산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방주 밖의 죽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감사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의 삶도 생활화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끔 염려와 걱정이 많은 교인들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 때마다 저는 염려 대신 감사라고 권면하곤 합니다. 종이를 펼쳐 놓고 연필로 감사한 제목을 계속 적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성령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셔서,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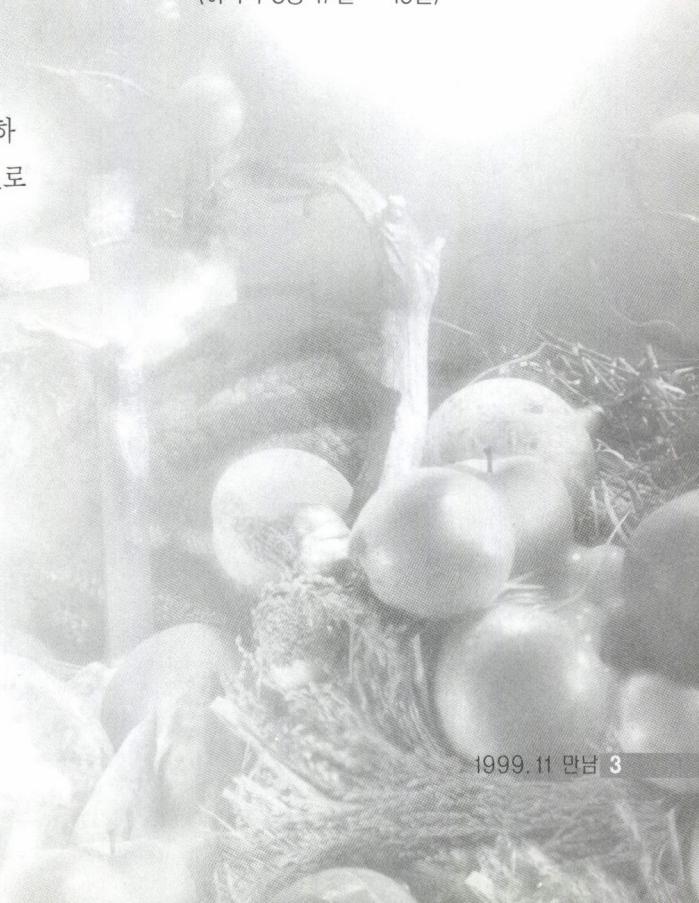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감사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생활 습관이 되도록 힘쓰시는 11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남**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장 17절 ~ 19절)



무엇으로 감사할고?



참석자

박국배 목사
이재규 장로
(영락교회 유지재단 이사장)
김선명 권사
(제2여전도회 군선교부 부장)
한영상 안수집사
(음악부 차장)
한경준 (대학부 교사)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고백입니다.



▶ **박국배** : 11월은 감사를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감사의 뜻은 영어로는 Thanksgiving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땅을 주셨거나, 생명을 주셨거나,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접적인 만남에 대한 감사 등으로 나타나 있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도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사역들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 **이재규** : 감사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적으로 조건적인 감사, 둘째

로는 상대적인 감사인 ~때문에(because of),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로 나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이와 같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사도바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돈과 명예와 지위와 건강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

손을 가질 때 물질적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삶으로 나타나야

▶ **김선명** :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의 가정에서 삶으로 우러나와야 합니다. 조건에 맞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적인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 **한영상** : 기독교인의 삶은 하루를 기도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감해야 합니다. 감사는 사랑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세대에 따라서 감사의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주시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 평안하게 지켜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숨쉬는 순간 순간을 감사하며 일거수 일투족까지 간섭하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 우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할 때 감사의 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은혜와 감사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한경준** : 예배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잘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의식이 없는 동안 즉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 가실지 모릅니다. 실은 여러분이 잘 때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 것은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주시고,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하루를 마

칠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하루를 열 때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 하셨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규** : 종(鍾)은 두 드려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항상 입으로 감사! 감사!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인간에 대한 존경과 섬김으로

▶ **한영상** : 감사는 인간에 대한 존경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무리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위로하면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 **한경준** : 감사는 성경 신명기 21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감사는 하나님께 헌신으로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값비싼 은혜’라는 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만 만족하면 값싼 은혜로 전락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저한 헌신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동반해야 합니다.

▶ **박국배** : 그리스도인의 묘미는 약속을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약속들이 삶 속에서 실행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입니다.

감사는 물질이 아닌 평안



▶ **김선풍** : 감사의 조건은 물질이 아닌 평안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그 예로 제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정이 더욱 하나되어

지역사회와 연결된 교회가 되어야

▶ **한경준** : 우리교회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교회라서 친근감이 부족합니다. 각 지역에서 모이기 때문에 쉽게 교인들끼리도 가깝게 지내지를 못합니다. 도심교회로서 지역과의 유대관계가 원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장인들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쓰일 수 있도록 교회를 열어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쉽게 들어와서 명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재규** : 우리교회는 하드웨어는 완성되었으나, 소프트웨어는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젊은이, 어린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합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을 개발해야 합니다.



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음악부에서는 토요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 **박국배** : 우리교회의 자랑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능력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점입니다. 예산, 인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봉사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의 공동체로서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순수한 기도가 있기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역할에도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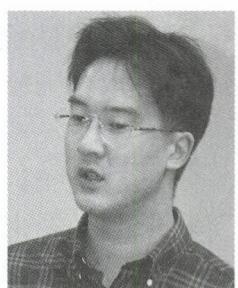
▶ **김선명** : 총회 때 봉사하는 권사, 여집사들은 새벽 5시 30분까지 모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만, 모두가 준비된 마음, 즉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맡겨진 곳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 결과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칭찬과 격려가 많았습니다. 봉사하고 난 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 **이재규** : 교회에서 여성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자 장로도 선출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 **김선명** :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여성의 몫입니다. 여성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때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감사

▶ **한경준** : 그렇지만 또래 청년들이 영락교회를 바라볼 때 이것이 “나의 교회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희박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청년시절이 끝난 뒤 교회에 남아 있지 못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은 영락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이재규** : 젊은이들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겠고, 앞으로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군선교와 학원복음화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군복음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덥지도 차지도 않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1년에 20만명씩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비전2020'을 만들어 75%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다지고 있습니다. 세례만 주어서도 안되고, 양육을 해서 개교회와 연결시켜 미래교인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우리교회만 국한시킨 전도가 아니라, 넓게 젊은이를 위한 전도를 해야 합니다.

▶ **한경준** : 청년예배, 젊은이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기도회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기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 **이재규** : 리빙스턴은 23세 때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칼빈은 26세 때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잘 훈련시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뒷받침을 해주어서 하나님께 영광돌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할까?

▶ **박국배** : "무엇으로 감사할꼬?"라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적으로

도 같은 맥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인생을 살려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보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한 헌신과 물질적인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로 빌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대상으로서 군대나 학교 등의 젊은이들은 매우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학습과 세례를 주고 양육시켜서 자국으로 돌아갈 때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역자로 만드는 것도 좋은 소재입니다. 영락교회는 전문화된 교회를 세워 외국인 근로자들을 돌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김선명** :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4대 미덕은 '근면, 정직, 겸소, 경건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 **박국배** :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가련한 상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위해 기대한 것 이상의 말할 수 없이 귀한 것들을 주셨다. 내가 현재 그의 저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오직 한가지 목적은 나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안녕**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추석맞이 영락보린원과 영락애니아의집 방문



중추절,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과 영락보린원, 영락애니아의집 원생들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이 추석을 이틀 앞두고 9월 22일 영락보린원과 영락애니아의집을 방문했다. 김대통령 내외분은 차홍봉 보건복지부장관을 대동하고 찾아와 박창식 영락애니아의집 원장과 우성세 영락보린원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원생들의 생활상을 돌아보고 위문품과 금일봉도 전달했다.

김대통령은 1층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원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하고는 한 원생에게는 준비해온 옷을 직접 입혀 보기도 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선물을 받은 원생들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김대통령 내외분은 원생들에게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하

면서 시종 인자한 미소로 원생들과 어울렸다. 김대통령 내외분은 또 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봉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고가 많지요” 하며 일일이 악수로 격려했다.

‘IMF 한파’ 아래 영락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어 금년 한가위도 매우 쓸쓸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가운데, 뜻밖에도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이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해줌으로써 금년 영락보린원과 영락애니아의집 한가위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기쁘고 풍성한 명절이 되었다. **안남**

초창기 영락교회에 도움을 준

애국지사 백영엽 목사



이 창로 원로장로

1945년 우리 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어 나라 찾은 기쁨에 민중 모두가 환희에 넘쳐 있을 때, 38선 이북에서 뜻하지 않게 붉은 깃발을 든 소련군이 진주하게 됨에 따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할 수 없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하게 되었다.

그 중에 일제의 강요에 따라 얼마동안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 신의주 부근에 은둔해 계시던 한경직 목사님과 윤하영 목사님 그리고 선천지방에 계시던 백영엽 목사님등은 민중의 지도자로서 일해 보고자 애썼으나, 할 수 없이 월남하여 한목사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윤목사님과 백목사님은 중요한 정부 기관의 일을 맡아 지내시면서 초창기 영락교회 설립 발전과 기독교계와 피난 신도들의 진로를 찾는 일에 많은 공헌을 하셨다.

백영엽 목사님은 1892년 평북 의주군 고성면 정주동에서 출생하여 1908년 의주 양실중학교를 졸업한 후 우리 나라가 일본에게 합병당했음을 통탄하고, 독립운동을 펴기 위하여 1913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북경 광문대학에서 수학하고, 1921년에 남경 금릉신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이 중국 유학시절 독립연설과 독립운동을 벌여 일제 경찰의 주목을 받고 때로는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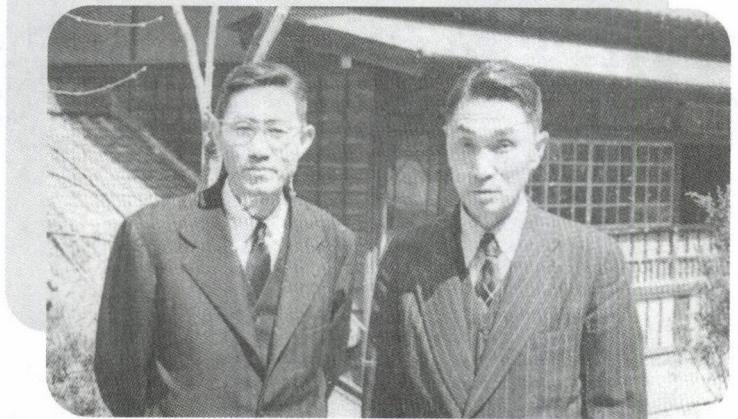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가 안창호, 이동녕, 이동휘 등 요인들을 만나 독립운동에 가담하기도

했고, 특히 흥사단에 가입하여 안창호와는 각별한 관계를 가졌다.

중국에서 신학을 마친 백목사님은 중화교회 목사 시무를 시작으로 만주 하얼빈 한인기독교회 목사를 거쳐 봉천 조선기독교회에서 시무하셨는데 이 기간에도 요인들과 접촉하면서 독립운동을 계속하셨다.

백목사님은 1933년 비로소 고국에 돌아와 선천 북교회의 청빙을 받아 목회를 시무하시게 되었으나 37년 동우회 흥사단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하고 사상이 불순하다고 하여 강단에서 물러나 은둔하던 중 45년 8월 해방과 동시에 선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평북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다가 신의주 반공학생사건 이후 월남하였다. 그 후 정부 강원인사 처장, 대광중·고등학교 교장, 이북5도 평북도지사, 독립동지 회장 등 여러분야에서 독립운동과 애국운동의 지도자로서 활약을 하시다가 1973년 향년 82세로 별세하시고 유해는 영락동산에 안장되었다.

백영엽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보다 10년 연상이어서 형제와 같은 친한 사이로 지내셨다. 서로 위하여 존경하는 가운데 여러 일을 의논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한목사님은 교회 일을, 백목사님은 국가 사회적 일을 맡은 입장에서 이북 피난민 문제를 놓고 항상 의논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백목사님은 중국어에 능통하셔서 중화인교회 설교를 담당하셨지만 때로는 영락교회에서도 설교를 돋기도



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피난 나온 이북 신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북 교직자들과 조직되었던 이북신도대

회 일을 하셨다. 이 이북신도대회에서는 피난민 구제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문제를 논의 결정하였는데 특별히 미국북장로교회 선교부의 원조를 얻어 피난민 교회를 많이 세운 일과 피난민 신도 자체의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대광학교를 설립한 일은 이북신도대회가 이룩한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대광학교 설립자이신 한경직 목사님은 그 초대 교장으로 백영엽 목사님을 천거하였다. 백목사님은 이북5도민을 위한 다른 일도 많이 했지만, 이북신도들을 위한 일이요, 우리 나라 건국인재를 양육해야 하겠다는 애국적인 뜻에서 이를 꽤히 수락하시고 대광학교 초창기 5년간 유임하시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던 피난민 신도 자체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격려하며 몸소 애국자의 생활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 주면서 지도하셨다. 대광학교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민주적 애국시민을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한목사님과 이를 몸소 실천해 보이는 교장 백영엽 목사님으로 인하여 학교는 날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백목사님은 대광학교 교장으로 재임중 학생들의 인상에 남는 많은 일화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로 들어 보고자 한다.

대광학교는 개교당시 서대문에 있던 피어선성경

학교를 임시학교로 사용하면서 현재 교지로 된 신설동 적산 대지를 불하받아 입주하고자 했으나 선점해 있던 기관이 비워주지 않아 분쟁이 있던 중, 피난민 학생들이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을 부르며 돌진하여 입주한 일이 있었는데 이 때 백교장님이 단상에 올라 “와 보라 이겼노라”는 로마 씨이저의 말을 인용하며 연설을 해서 학생들을 위로했는데 이것은 대광의 역사를 빛내는 한 장면이 되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두발을 깎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두발을 삭발하여 몸소 수범을 보인 일이나, 상급학생들이 하급생들을 때리는 일을 막기 위해 회초리로 당신의 종아리를 내리쳐 학생들간의 구타를 근절시키던 일들을 기억하게 된다.

백목사님은 언제나 독특한 어조로 열렬하게 설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다. 개교 당시 일주일에 3번 예배시간이 있었는데 교목 없이 혼자서 이 일을 담당하시기도 했다. 대광학교가 기독교학교로 전국에 모범이 되는 학교로 성장하게 된 것은 설립자로 한경직 목사님을 모신 것과 동시에 초대교장으로 목사이자 열렬한 애국지사이신 백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이라고 믿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안남**

“감사할 일들이 너무도 많은 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



이동범 원로장로

나로 하여금 산과 강과 평야가 조화를 이룬 전원

속의 학문의 도시, 그 아름다운 고도(古都) 경성의 한 평화로운 농가에서 태어나게 하사 순박하게 순수한 꿈을 가지고 자라도록 축복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가정에서 자라난 나를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죽마고우를 통해서 공산치하에서 구원하사 연천강을 건너 친구의 역할로 미군들의 차로 서울 필동까지 인도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48년 6월 16일 오인택 선생을 통해서 청주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던 김성찬 장로(훗날 영락교회 장로로 시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수학교사였던 장로님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날부터 청주고등학교 수학교사로 교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 그 놀라운 선택의 은혜에 감사 감격할 따름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청주에서 겪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교사였던 우리 부부와 가족을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생명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지켜 주사 청주수복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다시 교단에 서게 하사 주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서 인정받는 교사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고등학교 재직 중(1948. 6.16~1952. 6.17) 학교장 김성찬 장로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1952년 3월초 대광고등학교(부산 피난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신 김성찬 장로로 하여금 이 죄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해 6월초부터 부산에서 청주까지 내려오게 하사 밤에 여관에서 이 죄인을 부르게 하신 성령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대광고등학교(부산 피난학교)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감격할 따름입니다.

대광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부산으로 가는 열차 속에서 끊어야 할 것을 끊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주께서 이 죄인을 사용하시고자 역사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 감격할 따름입니다.

부산 천마산 피난학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사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서울수복 이틀 전(1953. 9. 28) 주일예배 시간에 최중해 목사로부터 부산구덕교회 강대상 밑에 끓어앉아 구원의 감격의 눈물의 세례를 받게 하신 그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할 따름입니다.



서울 수복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대광의 사택에 짐을 풀게 하셨고, 김 성찬 장로의 옆방에서 장로님의 사랑을 받으며 대광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가는 교사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밤에는 학원에서 온누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학교사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락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순수한 믿음의 그릇으로 자라게 하사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사 주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칠 뿐입니다.

때를 따라 드리는 예배시간에는 선포되는 말씀에 심취되어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을 기록하는 신앙의 열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벤엘성서연구, 새생활세미나 성서연구 과정을 마치게 하셨고, 성서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는 신앙의 열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책으로 엮어내는 능력과 지혜와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학이라는 좋은 재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통해서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가는 그릇으로 세워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학참고서를 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안경을 쓰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책

을 쓸 수 있는 건강과 열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직생활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의 기억에 남는, 그리하여 그들의 초청을 받아 해외여행을 갔던 감격, 아무것도 아닌 이 못난 스승을 기리는 장학회를 조직한 제자의 사랑을 받는 스승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대광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를 통해서 이 죄인을 원로장로로 은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 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위대한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살피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탐독하며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때를 따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늘의 가나안을 가는 우리의 나그네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사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두움에 뒤덮인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안남**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 99 선교대회

새로운 부흥,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령충만으로 선교를!'이라는 주제로 「부흥과 선교를 향한' 99 선교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선교대회는 21세기 세계선교를 준비하는 선교대회로서 영적각성과 영적부흥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선교대회 행사를 지향하고 영적부흥을 목표로 집회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번 선교대회는 새벽집회, 낮집회, 저녁집회로 나뉘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선교대회 행사로는 선교부흥회, 직장인선교대회, 권역별선교보고, 응답받는 기도회 등이 있다.

선교대회에 앞서 '캄보디아 선교물품 보내기' 행사를 벌였다. 전 교인을 대상으로 9월 26일부터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가전제품, 학용품 등을 수집하였고, 이 선교물품은 캄보디아에서 비정부기구(NGO)사역을 하고 있는 이영룡 선교사를 통하여 고아원과 선교대상지역에 보내지게 된다.

선교부흥회는 선교대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이다. 금년에는 기도원 공사로 산상부흥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온 성도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 따라서 선교부흥회는 예년과 달리 하루에 3번(새벽, 낮, 저녁집회)의 집회를 갖게 된다.

이번 선교부흥회는 손성현 목사(광주벧엘교회)를 주강사로 모시게 되었다. 손성현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귀한 목사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선교부흥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부흥회가 되길 기도한다.

직장인선교대회는 선교대회 전야제 행사로 준비되고 있다. 직장인선교대회는 16일(토) 4시부터 9시까지 베다니홀에서 열린다.

주강사로는 김진홍 목사(두례교회), 오을영 목사, 최봉오 전도사이며, 전국적인 직장선교모임인 직장인 성경공부모임과 연합하여 행사가 진행된다. 직장인으로 구성된 찬양팀과 함께하는 경배와 찬양, 도시선교를 향한 메시지, 현장에서 직접 선교를 하고 있는 직장전문선교사들의 생생한 간증,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현장선교 참여 비전 제시 등 매우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인선교대회 이후 주일직장인모임을 결성하고자 한다.

권역별선교보고는 손중철 선교사(싱가폴)를 모시고 성경공부반과 젊은이예배시 선교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손중철 선교사님의 사역과 두루선교회를 통한 동남아시아 선교전략, 인터넷 세계선교사 대학에 관련된 실제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선교현장의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받는기도회는 전 교구의 남녀선교회가 참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다. 18일(월)에는 1교구~6교구, 19일(화)에는 7교구~12교구, 20일(수)에는 13교구~19교구의 남·여선교회가 참여한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세계선교지의 모습과 영락교회가

파송한 협동선교사들의 사역을 Power Point와 VTR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화면을 통하여 선교지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된다. 따라서 생동감 넘치는 기도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선교대회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의 축제의 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기를 기도한다. 특히 이번 선교대회가 새로운 천 년의 세계선교의 문을 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안드레**

알 릴

'99선교대회 기간중

1. 교회내 숙박시설 사용(기념관 2층)
2. 제1,2식당 운영(3식) - 식비 1식 1,500원
3. 선교주일 설교본문, 제목은 전부서가 함께
4. 대심방, 성경공부, 주중모임 휴강 합니다.
※ 선교부흥회는 본당에서 새벽집회, 낮집회, 저녁집회로 모입니다.

"새로운 부흥 새로운 21세기"

'99선교대회

- 주 제/성령충만으로 선교를!(행1:8)
- 주강사/손성연 목사(광주 벤엘교회)
- 기 간/99.10.6(토)~20일(수)

부 · 총 · 과 · 선 · 교 · 를 · 향 · 한



선교 부흥회

- ❖ 일 시: 10월 17일(주일 저녁)~20일(수)
- ❖ 장 소: 본당
- ❖ 강 사: 손성연 목사(광주 벤엘교회)

권역별 선교보고

"싱가폴 선교 보고" (손중철 선교사)

직장인 선교대회

- ❖ 일 시: 10월 16일(토)오후 4시~9시
- ❖ 장 소: 베다니홀
- ❖ 강 사: 김진홍 목사(활빈교회)
오을영 목사(영락교회)

최봉오 전도사(영락교회), 직장인성경공부모임 대표

응답받는 기도회

- ❖ 일 시: 10월 19일(월)~20일(수), 오후 2시~5시
- ❖ 장 소: 베다니홀
- ❖ 일정별에 따른 교구별 남,여선교회

영락교회 선교부

캄보디아에 선교물품 보내기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찬양하다가 쓰러져요. 옷이 없어 주일 예배시 남자아이들은 거의 상의를 벗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불쌍해서 캄보디아를 떠날 수 없어요.” 지난 6월 캄보디아에서 처음 만난 이영룡 선교사의 말이다. 이영룡 선교사는 현재 싱가폴 손중철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두루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영룡 선교사는 선교사에 대한 펌박과 현지생활의 어려움으로 몇 번이고 캄보디아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빈민촌 큰형님으로, 고아원에서는 아버지로 캄보디아의 베림 받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다운 이웃이 되었다.

그는 현재 빈

민촌 청년 약 40여명과 빈민촌 아이들 160여명 및 캄보디아 고아 130여명 등 전체 약 330여명을 보살피고 있다. 캄보디아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빈민국가이고, 나라 곳곳에서 베트남전쟁의 상처와 가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하다. 또한 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애타게 찾고 있다.

영락교회는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들

에게 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외면하거나 버려 두지 않았다. 캄보디아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보고를 받고 선교부와 사회봉사부는 서로 협력하여 캄보디아에 선교물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먼저 2명의 책임자(선교부: 손경채 차장, 사회봉사부: 차동호 차장)를 선임하였고, 사회봉사부 실행위원, 1·2·3·4여전도회, 청년부가 협력하여 선교물품을 수집, 운반하였다. 교우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았다. 9월 26일과 29일, 그리고 10월

3일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의류 252상자, 신발 3상자, 문구 및 완구류 125상자, 가전제품 등이 수집되었다. 당초 수집 목표량을 초과

했다. 이번 선교물품은 비정부기구(NGO) 사역을 하고 있는 이영룡 선교사를 통하여 선교사님의 사역지와 캄보디아 정부에 전달될 것이다. 이 물품 전달을 캄보디아 국영TV로 보도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캄보디아 정부와 국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공산 치하에서 그들은 교회와 선교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선교물품을 통하여 캄보디아 정부와 국민들이 그리



사회봉사부원들과 선교부 실행위원들

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여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교회와 선교사에 대한 편입이 완전히 사라지고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기대한다. 또한 선교물품을 받고 기뻐할 캄보디아인들을 생각하며, 이 귀한 사역을 영락교회에 맡겨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린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

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25:36)

강도 만난 캄보디아에 10월 4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선교물품이 보내졌다. **만남**

성경에 나오는 식물(59)

금 때죽나무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호세아 4장13절)

인용절의 버드나무는 3회(버드나무, 벼들잎사시나무, 은백양)에 걸쳐서 해설한 나무류와는 전혀 다른 종류로 금때죽나무를 말한다. 히브리명은 리브네인데 ‘희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으며 영명은 *Styrax*이다.

금때죽은 잎이 보리수나무처

럼 은백색이며 흰색의 꽃이 핀다. 때죽나무와 구별되며 열매의 특색에 따라 금때죽나무라고 하였다.

금때죽에서는 진이 나오지 않아 출애굽기 (30:34)의 때죽나무[성경에 나오는 식물(11)]



만남 제255호(1995) 참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금때죽은 3~6m 정도의 높이로 성장하는 낙엽활엽수로, 잎은 호생(互生)하고 원형에서 넓은 타원형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은백색이다.

꽃은 4월에 피고 때죽나무의 꽃과 같으며 향기가 있다. 열매는 핵과(核果)이며 황색으로 성숙하고 잎이 떨어진 다음에도 남아 있다. 씨앗은 빽아서 물고기를 잡는데 쓴다.

(김주홍 집사)



배 성 식 목사

우리교회 봉사관 옆에 있는 은행나무는 올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뜨거운 햇빛 아래 잎까지 바래가며 힘들어 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했지만 은행나무는 여전히 든든히 서가며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만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지난날들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를 아무런 대가없이 받은 증거로 모든 생명있는 것들은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 곧 영생을 얻은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거저 받은 은혜의 증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은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지옥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전도의 일은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곧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기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곧 영적으로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사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에게는 하늘의 생

명의 기운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또 연령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세상적인 것이 비슷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는 일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마음자세와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일이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또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모든 수고는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전도자의 첫 번째 자격은 무엇보다 그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다 해도 전도자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깨울 수 없고 그 영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구원의 확실한 체험과 함께 전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전도는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16)라고 고백했습니다. 전도자들은 예수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자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마음의 자세와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충만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성령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모름지기 “내가 전도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심하게 됩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전도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야 합니다. 전도는 성령님과 함께 뜻을 같이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전도인은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전도하는 전과정에 기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 없이 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의 준비가 없이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도한다

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보다 나은 전도의 방법과 홀륭한 조직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조직과 계획과 방법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릎을 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인내와 겸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데는 인내와 고통이 따릅니다. 영적으로 전도하는 일에도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기뻐하고 소망을 얻듯이, 인내하면서 전도할 때는 꼭 결실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전도의 역사와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꼭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결실 할 때입니다. 농부는 결실을 기다리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결실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실의 아름다운 계절, 영혼의 결실인 전도를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결실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남**

영락 청년의 해외 선교

-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와서



조 건진 안수집사
청년부 차장

해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교회의 팀들로 좌석을 가득 채운 우즈베키스탄 항공기가 비오는 김포공항을 이륙하여 구름을 뚫고 하늘에 오르자 천지는 온통 하얀 솜들로 채워지고, 구름덩이와 햇빛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모습은 비행기를 타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이다.

초목이 거의 보이지 않는 끝없는 사막과 빛밋한 산과 멀리서 보이는 높은 산 정상의 눈들을 보면서 중앙 아시아를 가로지른 비행기가 8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해질 무렵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쉬켄트에 도착했다.

청년 시기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의족 기술자가 되어 국내 병원과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결혼하여 가정도 이루고 현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의족 공장을 운영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홍대욱 선교사를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는 힘든 삶이었지만, 공산권 선교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되었다.

타쉬켄트 소재 아한가란 무의탁양로원에서 50달러로 현지에서는 잘 차린 300명의 점심 식사를 목화 기름과 양고기 볶음밥으로 마련하고 영락의 청년들이 준비해 간 찬양, 선교 드라마, 수화 찬양, HANDS, 고전무용과 태권도를 보여 주고 이들의 양로원 운영을 본 것도 큰 훈련이었다.

타쉬켄트에서 싸마라칸트, 부하라까지의 700여

km를 2박 3일 동안 150달러에 전세내어 징기스칸이 말타고 달렸던 광활한 대지, 아라비아 대상들이 낙타를 타고 달렸던 실크 로드, 끝없이 펼쳐지는 목화밭과 황량한 들과 이따금 보이는 집단적인 촌락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가 가능하기를 기도했다.

사마라칸트 기독교회에 갔을 때 바라본 십자가는 감격적이었고, 이승률 선교사가 정식 교회 허가를 받아 5개 교회를 개척하여 역동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것과 현지 청년들과 함께 목요 찬양집회를 하고, 고려인 박제냐 전도사의 통역으로 함께 나눈 심야기도회에서 그들의 뜨거운 교회사랑과 민족을 향한 선교 열정을 접하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현지 교회에서 사용하는 한-러 찬송가를 편찬한 박재훈 목사, 영락교회의 지원, 한경직 목사의 추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면서 처음 듣는 영락의 청년들의 자궁심과 현지 청년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선교를 향한 청년의 꿈을 역설했다.

열악한 현지의 숙박 시설이었지만 우리팀의 하루 숙박비를 절감하면 몇 개월의 생활비가 되는 현지의 여건에서 평신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의 집이나 가정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그들의 삶을 통한 선교 사역을 체득하고 기도하며 협조함으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는 것도 청년의 때에 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교회 앞에서 이승열 선교사님과 함께



요함을 느꼈다.

실크-로드의 중심에 위치한 부하라 지역에 교역 시장을 마련해 두고, 이슬람 사원을 세워 놓고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코란을 들고 전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외형적으로 이슬람 종교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역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하며 중앙아시아가 급속히 이슬람 국가로 바뀐 것을 알고 전율을 느꼈다.

공산주의 국가 통치를 위해 70여년간 종교활동을 금지시켰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릴 때의 이스람 종교의식에 향수 젖어 있는 노년의 세대와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과격파 회교인들의 정권 탈취 의욕과 이들을 막으려는 현집권층의 충돌로 합법적인 종교활동이 전면 금지된 현재의 상황에서 향후 5~6년간이 중점적으로 선교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현지의 기존 교회(가정교회 포함)에서는 특별한 산업이 발달하지 아니하여 시간 여유가 많은 현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대 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

며, 떡을 빼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현지인들을 전도의 역군으로 양육하고, 국내에 있는 교회들은 기도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겠다.

평신도들이 나가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영어교육과 이·미용 등 기술교육, 컴퓨터 교육 등을 통하여 간접 선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현지의 고려인들이 크게 궁지를 갖고 있는 대우 자동차의 다마스와 티코가 거리를 누비거나 주산품인 목화를 가공하는 갑을방적처럼 현지에서 기업 경영을 하거나 무역을 하면서 종업원에게 전도하는 것도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우즈베키스탄을 복음화하는 일에 영락의 청년들의 많은 도전을 기도하며 동역한 현승학 목사, 이은영 팀장, 박경수, 이선주 부팀장, 박용현, 권용성, 김은영, 박성호, 고영일, 한지혜, 김희수 팀원에 감사드린다. **만남**

중앙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 원 도 집사
대학부 서기

중앙아시아의 각 나라들마다 타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들이다. 전통적인 우즈벡인, 카자흐인, 타지인, 키르키스인 등 순수한 자기 민족이 60~70%이고 나머지는 약 70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다. 그 중에 우리 동포인 고려인들도 40여만명이 살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주로 불교의 영향을 받아 오다가 751년경 중국과 위크르 연합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아랍-티벳-카를루 동맹군의 도움을 빌린 후에 중앙 아시아 전체에 이슬람 세력이 퍼지기 시작했다. 주로 수퍼즘의 영향을 받은 수니파로서 전통 이슬람이라기보다는 세속주의식이며 전통적 샤머니즘이 결합된 이슬람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각 나라마다 그 민족의 99%가 모슬램이지만 이슬람 경전(코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이슬람의 종교성이 희박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중앙아시아는 이슬람과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이슬람 지역인 중동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아시아가 복음화되어야 한다. 중동지역에 가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현실에서 같은 종교 문화권인 중앙아시아를 변화시키는 것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속한 나라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크스탄, 키르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이슬람권에서도 그 중요성을 감지했는지 1993년 이후 중앙아시아에 상당수의 이슬람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신학교를 세웠고 회교 사원들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결탁하여 기독교 선교를 방해하고 있어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슬람 세력이 이미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의 서북지역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중국도 머지않아 이슬람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아시아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중요한 선교의 발판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이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 강제로 이주 당한 고려인들이다. 그들이 당한 괴로움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들의 역경과 고난을 방영하기도 했고, '카레이스키'라는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고통을 겪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은 상당히 심한 것이었다. 그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그들은 그곳에서 아직도 온전히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그들을 위로하고 고통을 달래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은 복음으로 삶에 의미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 민족을 그곳에 있게 하신 섭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40만의 고려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곳 언어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선교할 때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중앙아시아 선교에 헌신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통하여 그곳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다.

1996년도에 영락교회 사회부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지크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게 쌀과 한복을 전달하는 일을 시작으로 1997년도에 대학부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지역과 사마르칸트 지역에 하기선교 봉사를 다녀오게 되었다. 그후 그곳에 갔다온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섭리를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을 돋기 위해 기도모임이 태동되었다. 그후에도 의료선교회와 이·미용선교팀이 두 차례 다녀왔고, 1999년 9월 20일 청년부 하기선교팀과 그리고 청년부 단기선교 사역자가 다녀왔다. 선교사님들과 그곳에 다녀온 분들이 그곳을 마음에 품고 중앙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기 위해 중앙아시아 선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돋고 후원하며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은 대학부 김범식 지도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선교부 하충엽 목사님이 맡아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영락교회 전임전도사로 있을 당시 중앙아시아 선교지에 다녀오신 타교회 목사님,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재학중에 중앙아시아에 단기선교사로 다녀오신 목사님, 전도사님들, 영락교회 대학부 출신들, 이·미용봉사팀으로 다녀오신 분들, 그 외 그곳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매월 모여 함께 기도하며 그곳 선교사들의 선교보고를 들으며 그곳을 향한 선교의 계획을 세워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선교하길 원하신다. 그 땅과 그 민족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교의 장과 발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니,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신다. 그 요구에 순종하며 선교에 영적 전투의 현장인 중앙아시아를 위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만남

중앙아시아 선교회 홈페이지 안내
<http://www.casia.com>

제1회 인터넷 해외 선교 봉사

서상현 집사
제1회 인터넷 해외 선교 봉사팀 총무

제1회 인터넷 해외 선교 봉사팀은 “가서, 보고, 전하자”라는 전략에 맞추어 현지 선교사 및 교인 교육을 통한 인터넷 선교망 구축, 현지 선교사 사역지원, 현지 경험을 통한 장기적인 인터넷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를 준비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며 이번 봉사는 적절한 시기에 교회 내외부의 관심속에 기획이 되었으며, 1981년도에 싱가폴에 파송되신 손중철 선교사님께서 사역중인 싱가폴 지역과 2억 2천만명의 인구가 있는 인도네시아를 선정하고 준비했다.

짧은 준비기간중 여러 차례의 워샵과 기도회를 통하여 16명의 팀원은 하나가 되며 서로에게 맡겨진 일을 분담하며 준비했다.

현지교육준비, 현지교재작성, 핸드북작성, 현지와의 이메일 교류등으로 팀원 모두 바쁘고 힘들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준비를 완료한 후 10월 1일 오후 6시에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직장인과 청년들로 구성된 팀원들은 힘든 비행 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작은 불꽃 하나가 큰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的 주제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모든 일정을 의탁하며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기도하며 싱가

풀에 밤11시30분에 도착했다.

둘째날, 선교지 탐방으로 인도네시아의 바탐을 방문했다. 뚜나스바르 기독초등학교와 바탐신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학교를 보며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주심에 감사를 드렸다.

싱가폴 한인교회 두루선교회의 지원으로 5년전에 세워진 뚜나스바르 초등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어지는 중학교 건물 신축 지원의 기도제목을 뒤로하며 싱가폴로 돌아왔다. 오후부터는 선교사님들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많은 선교사들이 참석하였고 6개의 그룹별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파를 초월한 현지 선교사들의 인터넷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며, 밤 10시가 넘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보를 검색하며 자료를 정리하는 가득한 열기로 주님을 찬양했다.

주일 예배는 싱가폴 한인교회에서 3부예배를 드렸다. 김동규 목사님께서 ‘해방, 자유, 기쁨’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교육장으로 바쁜 발걸음을 이동한 후 현지의 교인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6시까지 교육을 마쳤다. 두루선교회 운영 및 세계 선교사대학의 설립과 추진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손중철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 후



싱가폴을 출발했다.

자카르타에는 밤 12시경 선교장학관에 도착했다. 깨끗한 시설의 인도네시아 선교사협의회 선교장학관의 건물은 구입한지 보름밖에 되지 않아 우리 일행이 첫 번째 방문객이었다. 좋은 시설과 아늑한 분위기에 하루의 일정을 감사하며 평가회를 마쳤다.

넷째 날, 자카르타 교육에 선교사들이 38명 참석하였다. 7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컴퓨터의 기초, 인터넷의 기초, 워드작성, 파워포인트작성, 엑셀사용법, 홈페이지 작성법 등을 교육했다. 현지의 관심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고, 감사 기도의 제목을 많이 주셨다.

마지막 날 교육은 이른 아침부터 진행이 되었으며,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인터넷 교육을 계속했다. 기쁨에 넘친 선교사님들의 모습,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렇게 쉬운 것을 이야기하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찬양했다. 2일 간의 작업 끝에 선교사협의회의 홈페이지를 완성했다. 시연회를 마친 후 선교사 간담회를 갖고 이번 교육의 의미와 장단점을 평가하고 모든 교육 일정을 마쳤다.

밤 12시 35분 비행기에 올라 10월 6일 아침 8시 15분 서울에 도착하였다. 도착하자마자 회사로 출

근하는 남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번 봉사는 제 3 남선교회에서 기획하여 선교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남녀 선교회와 청년부, 대학부, 인터넷팀 등 컴퓨터를 사랑하는 많은 교우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진행이 되었으며, 이번 교육에 참석한 팀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터넷 선교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중요한 일정이었다

앞으로의 주요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세계선교 정보의 공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선교사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선교사를 위한 기도제목의 공유와 기도지원, 해외선교사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컴퓨터 단기 선교사 파송, 등의 주제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일정이었다.

이번 봉사에는 지도 교역자 김동규 목사, 팀장 김재완 집사, 부팀장 임우섭, 강명옥 집사, 총무 서상현 집사, 교육인원으로 공수일, 이세림, 조병준, 김경덕 집사, 김형선, 김경직, 박성준, 박준영형제, 김민지, 김성은, 박평자 자매, 그리고 송도숙 '소금과 빛'의 취재기자 등 총 17명이며, 사공운집사와 홍보지원팀, 싱가폴 현지 정하진 집사부부, 기도로 지원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남**

삶의 진정한 큰 빛을 가르치는 교육현장 대광고등학교를 찾아서...



탁 준 호 교장

이신 이영민 장로님의 안내로 탁준호 교장선생님을 만났다.

대광고등학교 12회 졸업생이신 탁준호 교장선생님은 특히 기자가 고등학교(이화여고) 재학 시절 국어 선생님으로 재직하셨던 관계로 더욱 뜻깊은 만남이 되었다.

삶의 진정한 큰 빛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탁준호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뉴밀레니엄 시대의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방향에 대하여 자상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① 대광고등학교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설립하셨습니까?

▶ 1945년, 공산 치하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 월남한 수많은 피난민들이 타향살이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교육을 염려했습니다. 1947년(봄), 월남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이북신도 대회' 개최 중에 피난민 자녀 교육문제가 정식 거론되어 이후 베다니전교도회(현재 영락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

지난 9월 28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교육의 바탕으로 창립되어 50여 년간 여러 분야에 많은 인재를 배출한 대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본교회 홍보출판부 부장이신 김

성배 장로님과 행정실장

의한 결과 교육위원회를 선출하여 학교 건립 추진을 위임하였으니, 위원장은 한경직 목사, 위원으로 이창로, 이인식, 선우훈, 박학전, 이항선이고 1947년 8월 이사장에는 한경직 목사, 이사는 이인식, 선우훈, 박학전, 이항선, 김성호, 김치복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1947년 11월 25일 이사들의 전방위 노력과 특히 이창로 문교부 장학사의 노력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1947년 12월 4일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생 291명을 선발하여 임시 교사인 서대문 '피어선 성경학교'에서 개교하였으며, 교사진으로 교장에는 백영엽 목사, 교감·교무에는 이창로, 교사에는 박동엽, 장윤철, 송성찬 등 7명이었습니다. 이사장 한경직 목사는 개교식전에서 "대광학교는 그리스도를 교육의 표준으로 하여 민족교육, 과학교육,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랑과 평화와 자유의 새세계를 건설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신으로써 대광학교 설립목적과 교육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했습니다. 1949년 일본인 귀속재산인 동대문구 신설동 53-3 '종연방직공장'을 불하받아 이전했습니다.

② 학원복음화의 성과란 어떤 점을 들 수 있습니까?

▶ 학원선교의 본질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하는 것"이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존재라는 인

간관을 인식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52년 동안 대광학교 졸업생 중에 500~600명의 목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세계 각처에 교인 1만명 이상 교회가 20곳이 있는데, 그 중 10곳이 한국에 소재하고, 그 중에 5개 교회에 대광학교 출신 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으며, 물량적인 척도는 아니지만, 대광학교야말로 기독교 교육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기독교인을 많이 배출한 학교교육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 '경천애인'이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공경('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이웃사랑(사랑·평화·자유의 삶)입니다. 70년대는

성실, 근면, 협동, 봉사에 입각하여 모델로 4대 위인을 선정했습니다. 즉 이순신(애국자 성웅), 안창호(민족의 스승), 맹건(민주주의 표본), 슈바이처(20세기 인류봉사의 성자)입니다. 대광학교의 지표는 전인교육, 기독교교육, 인성교육, 자율자학교육, 세계시민교육, 과학기술교육이며, 80년대와 90년대에는 생활관 교육, 예절, 봉사교육이었습니다. 21세기 교육의 지표는 '자율적, 창의적, 기독교적 인간교육'입니다.

④ 교목실에서 교사, 학생 신앙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사는 벤엘성경 연구(3학기), 기초신학 연구(1학기), 성경통독회(3학기)를 10~20명 내외로

반복운영합니다. 학생은 예배(주 1회, 매일 아침 학급예배), 성경수업(조별토의), 특별활동(신앙부장반, 찬양반, YMCA반, 조이선교반 등)을 통해 모범적인 교사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⑤ 신앙적 차원의 교사 구성과 학생의 교회 출석률은 어떻습니까?

▶ 교사는 거의 전원 세례교인으로 구성되었고, 학생은 입학시에는 25~30%가 교회 출석을 하고, 졸업시에는 45~60%이며, 20~30%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과거 학생 선발시: 입학시에는 70%, 졸업시에는 95%).

⑥ 기독교 학교로서 학생의 신앙지도는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 영적세계관(세계와 사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을 가진 신앙 인격을 양성하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기독교 정신을 통하여 도덕의 본질과 양심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고, 기독교 사랑을 본받아 헌신과 봉사의 생활을 실천하게 합니다.

⑦ 명문 기독교 대광으로서 사회에 내놓을 만한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한 사람의 인간을 올바른 인간으로 만들어 배출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종교계 목사 500~600명, 교육계 교수 500~60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인으로서 사랑과 봉사의 생활에 실천궁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기자의 인터뷰에 응해 새시대의 대광고등학교의 교육방향을 자상하게 설명하는 탁준호 교장선생님, 그 옆은 김성배 홍보출판부장.

⑧ 21세기 기독교 학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 21세기는 초고속의 변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앨빈토플러는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질병은 미래의 충격이며, 이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이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학자, 윤리학자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만연으로 사회 공동체가 상실되고, 윤리의식의 실종으로 인간관계의 위기가 오며, 생활의 기계화, 자동화, 전산화로 획일성을 조장하면서 인간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정보, 식량, 에너지 등의 개발과 소유를 둘러싸고 국가간 경쟁과 분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인성교육을 더욱 충실히 실천하여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협력하여 도래할 위기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⑨ 8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대광은 어떤 교육을 실천하려고 합니까?

▶ 경천애인의 이념을 구현하는 기독교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도덕적 생활을 지도하고, 사랑, 평화, 자유, 신뢰, 존중, 협력의 학교문화 창달을 기하고, 창의성, 사고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세워서, 자율책임,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학생 자치활동 신장을 꾀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전산교육을 실천, 강화 할 것입니다.

⑩ 앞으로 대광교육이 더욱 발전하려면 어떤 점을 강조할 것입니까?

▶ 학교경영 패러다임의 능동적 변화 필요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인 21세기에 우리 교육이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변혁을 선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학교가 변하고 교육이 변하고 청소년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정태적이고 안일한 현실유지적인 패러다임으로부터 약동적이고 혁신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방적 주입식 암기교육에서 대화, 토의식의 창의적 교육으로, 획일적, 서열적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규제, 통제 위주 교육에서 자율적, 책임적 교육으로, 폐쇄적 교육에서 열린교육으로 실천 할 것입니다.

2시간 여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10가지 질문을 상세히 답해 주신 교장선생님으로부터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변화하는 교육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교육장의 철학을 느꼈으며, 복음적 신앙이 교육현장 이곳저곳에 스며있어 밀레니엄 시대에 큰 빛을 가르칠 진정한 상(像)을 느낄 수 있었다.
만남 (취재·인미)

- 가정에서의 호칭 -

장 소 원 집사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되어 있어서 직계가족 단위로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직계보다 넓은 범위의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호칭 때문에 한동안 곤란을 겪곤 한다. 동기간도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형이나 아우, 누나 또는 언니, 동생 등의 단순한 호칭이면 충분하지만 각자의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새로 불러야 하는 호칭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말에서 가족과 친족의 호칭이 다양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어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경어법과 함께 길이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 여겨져서 자신의 동기와 그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동기와 그 배우자를 어떻게 호칭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기로 한다.

먼저 자신의 동기와 배우자에 대한 호칭은 크게 남자인 경우와 여자인 경우로 나뉜다. 남자의 경우, 형, 또는 형님의 배우자를 부를 때 '아주머님, 아주머니, 형수님'이라고 하고 남동생의 아내는 '제수씨, 계수씨'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누나의 남편은 '매부, 매형, 자형'으로 부르고 여동생의 남편은 '매부', 혹은 'O서방'이라고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 여자의 경우 오빠의 아내는 '언니' 혹은 '새언니'라고 부르고 남동생의 아내는 '올캐'라고 부르며, 여동생의 남편은 'O서방', 'O서방님'이라고 하는데 여동생의 남편이 나이가 많은 경우에 '-님'을 붙이면 된다. 여기까지는 자신의 동기와 관련된 것이어서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 동기들이 각자 배우자가 생겨서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를 부르거나,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를 불러야 할 때는 호칭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먼저 남편의 형을 부를 때는 '아주버님'이라고 하고 그 아내는 '형님'이라 부른다든지, 남편의 아우, 즉 시동생이 미혼인 경우는 '도련님'이라 부르지만 기혼일 때는 '서방님'으로 부르고 그 아내는 '동서'라고 부르는 것은 기본적인 호칭이다. 남편의 누나는 여자끼리지만 '형님'이라고 부르고, 남편의 누이동생은 '아가씨, 아기씨'라고 하는데, 이 시누이들의 배우자는 손위 시누이인 경우 '아주버님'과 '서방님' 가운데 골라서 부르면 되지만, 손아래 시누이의 남편은 '서방님'으로만 부른다.

다음으로 아내의 오빠는 '형님', '처남'으로 부르고 그의 아내는 '아주머니'라고 부른다. 우리의 전통에서는 원래 처남의 아내와 시누이의 남편은 내외를 하여 직접 대화하는 일이 없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서로 만나는 일도 많아지고 호칭할 일도 생겨서 '아주머니'라고 하도록 새로 정한 것이다. 아내의 남동생 곧 손아래 처남은 전통에 따라 '처남'이라고 부르고 나이가 아주 어리면 이름을 부르는데, 손아래 처남의 아내는 '처남의 댁'이라고 부른다. '처형'이라 부르는 아내의 언니의 남편은 '형님' 혹은 '동서'라고 부르고, 처제의 남편은 '동서' 또는 'O서방'이라고 부른다.

이상의 호칭들은 직접 대면하여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고 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이나 부모님께, 혹은 남들에게 지칭할 때는 각각 다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어렵고 독특한 우리의 호칭어와 지칭어를 지난 추석에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되돌아보고 혹시 잘못 사용한 것이 있다면 다음 만남에서는 고쳐보는 것이 좋겠다. **만남**

열심(熱心)과 열심(列心)



진영중 전도사 얼마전 결혼을 앞둔 여성들에게 '자신의 남자 친구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라는 설문 조사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중 가 장 많이 응답된 항목은 '자신의 일에 성실히 몰두하고 있을 때'라고 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몰입하는 모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진실하고 또한 성실함에서 우러나오는 신뢰감을 갖도록 해주므로, 바로 그런 응답이 나온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기실, 게으르고 나태하며 성실하지 못한 자세로 자신의 일에 임한다는 것은 바로 본인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연유 이리라는 생각이 그저 '과격한(?) 사고(思考)'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에서는 그 사회 구성원의 일 원으로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살아 남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쨌거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삶의 활력소가 되어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껴안게 한다.

요즈음 성도들은 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교역자들도 좋아하기 힘들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부서와 구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서 여간 가슴 뿌듯한 것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일주일에 4일 이상을 교회에서 보내시

는 성도들도 계시는 것 같아 참으로 사랑스런 마음이 샘솟는 것이다. 필자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열심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비롯하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바로 그 열심을 우리는 좀 겸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딱히 그 열심조차도 없는 분에게는 이러한 겸증까지도 불필요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인식의 아노미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말아야 한다!!!

게으르거나 나태하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소위 '열심'들을 잘 살펴보면 '열심(列心)'을 가지고 '열심(熱心)'으로 오해하는 죄면(催眠) 속에서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이다. 이 '열심(列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인간의 영혼을 되살리고 마음을 보듬어 껴안는, 신앙의 원초적이고 궁극적 목표와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말 그대로 일을 '벌여' 놓기만 하는 것이다. 꼭 우리 교회를 지칭하여 말하자는 것은 아니라, 온갖 세미나나 성경공부, 큐티 그리고 소위 교회에서 노른자로 불려지는 갖가지 모임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그 모임에서도 주도적인 핵심 인물로 부상되어야만 사회성 있는 인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이름나고 이른바 잘 나가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불감성(不感性) 질병이며, 또한 유행병처럼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다.

이들은 ‘사역(使役)’이 아니고 ‘사업(事業)’을, 사랑을 향한 ‘연합(聯合)’ 보다는 부처(部處)의 이익을 위한 ‘연대(連帶)’를 선택한다. 열심히 사업만 벌여 놓으면 그러한 자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고, 천국에서 ‘개털모자’를 쓰지 않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옳은 말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실하게 충성하면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열심(熱心)’의 의미를 왜곡, 축소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고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다른 이들을 비판의 눈총으로 바라보는 우를 범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 ‘열심(列心)’은 자신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을 가져다주면 이내 ‘열심(熱心)’으로 변해, 문자 그대로 타인에게 ‘세차고 매운’ 마음으로 가시가 되어 찌른다. 뿐만 아니라 일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게 한다. 강남의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공감한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무지(無智)하지만 용감한 사람이고, 가장 무서운 일은 이러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열심(列心)’을 ‘하나님의 열심(熱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또한 그에 비유하기도 한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 할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하자면 필자 자신도 얼마나 이러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으며, 또한 이 사실을 간과하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열심히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보자!!!

늘 변함없이 성실하게 다가오는, 그러나 늘 새로운 아침 같은 여호와의 성실하심(애3:23)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의 영혼을 되살리고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해야만 한다. 깨어진 교회를 회복시키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열심(熱心)’을 가지고 뜨겁게 감당해야 한다. 열심(熱心)과 열심(列心)은 종이 한 장 차이이고 본인도 스스로 느끼기 쉽지 않지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척도는 하나님과 본인에게 진실해야 하는 것이다. ‘진실’이라는 리트머스 종이를 늘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여 그 반응치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육체의 욕망을 어거해야만 한다. 실로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자신도 이러한 진실함 가운데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 열심(zeal)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사 9:7).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안에서 자유케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한다(고후 9:7). 내가 중심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된 열심이 충만한, 그리고 그 열심으로 가득찬 우리 영락의 전통을 이제 우리가 완연히 계승하여 우리의 믿음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일 심방중에 만날 우리 식구들의 얼굴이 따뜻하고 아름다울 것 같다.**만남**

새 천년, 교회와 문화



박 용 범 전도사
문화사역팀

새 천년 시대, 문화의 위치

다가오는 새 천년을 앞에 두고 교회 안팎으로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이다. 문화적으로 아직은 황무한 이 땅에서 문화를 말하고 나아가 '문화의 세기'를 예견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무리가 있는 듯 싶지만,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려온 주제가 '문화'라는 사실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대로 현대문화의 대표주자인 대중문화가 대중들의 가치관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다. 경제논리와 결탁한 대중문화는 더욱 갑작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새 천년 시대에 더욱 심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다수가 같은 시간에 같은 인기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며,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같은 국제 경기를 보면서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애를 태운다. 엄청난 관객이 같은 영화를 보면서 같은 정서를 나누며, 전세계 어디서나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통해 같은 정보를 나누고 서로 대화한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일에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6일 동안 직장이나 가정에서 만나는 문화의 강한 영향 때문에 말씀의 생명력을 잃고, 나아가 성경적인 가치관마저도 부지불식중에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문화의 문제는 이제 교회와는 상관없는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현대문화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현대문화에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곁으로 드러나는 향락과 사치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와 도덕과 같은 '세계관적인 패러다임'의 붕괴와 혼돈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세계관적인 패러다임의 결과가 곧 문화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세계관적인 패러다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결정되고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학자 폴 틸리히는 그의 책 [문화의 신학]에서 "궁극적인 관심인 종교는 문화에 의미를 주는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근본적인 관심이 그 자신을 표현하는 형식의 전부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세계관적 패러다임은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것과 연결된 세속주의와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현대문화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근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현대문화를 한 마디로 대변하는 포스트모더니즘도 결국 알고 보면 인본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현대의 문화를 지배하여 각종 문화의 내용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와 문화의 상관 관계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교회는 왜 문화에 대해 말해야 하는가? 먼저 그것은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른 인류의 보전과 번성, 그리고 그를 위한 자연의 효율적 관리와 청지기적인 통치는 인간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물론 서구에서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사회의 그릇된 경제논리와 이원론적인 사고가 결부되어 이 명령을 왜곡하고 자연을 착취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 땅의 문화 가운데 인정하여 문화를 선하게 다스리고 관리할 청지기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지상명령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다.

문화는 바로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일종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 문화는 세상을 향한 선교의 효과적인 접촉점이자 다리가 되는 것이다.

교회와 문화와의 관계는 이렇듯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이거나 너무 낙관적이어도 곤란 할 것이다. 문화에 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문화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영역이라는 긴장 관계 속에서 교회가 문화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문화의 역기능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교회가 문화를 정화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문화에 대한 청지기적인 바른 책임의식을 가짐과 동시에, 문화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 주고 선도하는 것이야말로 새 천년을 맞이하는 교회의 문화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의 전통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문화를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어 가는 문화 변혁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유행하던 발 씻기는 습관, 즉 높은 사람들의 발을 종들이 씻겨주던 유대 문화를,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문화로 바꾸는 문화 개혁 작업을 손수 행하셨다(요 13:1-17). 우리들도 이제는 문화 비판자에 머물지 않고 주님과 같이 문화 변혁자, 문화 창조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

감사하게도 우리 영락교회 안에는 1998년도부터 문화사역팀(CCW)이 발족되어 이러한 교회의 문화에 대한 사명을 선도적으로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현재 기획, 음악, 문화비평, 미술, 뮤지컬, 드라마, 영상, 국악, 발레 등 총 9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새 천년의 앞서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 문화사역팀의 다양한 사역에 앞으로 전 교회적으로 더 많은 기도와 관심, 협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순종하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이순자
고양·일산 지회장

지회장을 처음으로 맡았을 때, 믿음의 선배들의 염려와 사랑과 충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찾아가 엎드렸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가장 작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일산지회는 신도시의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도 서먹서먹함이 있고 또 지회원들끼리도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은평지역과 신도시지역은 한 지역이었는데 고양·일산교구는 교구 중 가장 큰 지역이어서 98년 12월에 은평지역과 고양·일산지역으로 2개의 지회로 나뉘었습니다.

지회임원단은 우리지역에서 하나님의 지체임을 나타내는 일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을 때 모두가 찬성을 했고, 이런 저런 의견 중에 교회 내에서 작은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IMF로 인하여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모자원을 돋기로 결정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지회에서 준비해 전달하고 격려와 위로를 하였습니다. 또 작년 연말에 이만용 목사님께서 “일산지역에 도움을 주어야 할 두 가정이 있는데,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정성을 모아서 도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돋는 일은 물론이며, 계속적으로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일, 지회원들이 힘을 모아 지역 내에서 계속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찾은 곳이 일산홀트아동복지회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일은 청소와 목욕시키기, 산책시키는 일, 식사보조, 어버이날 판매할 꽃을 만드는 일, 또 어린이들을 위해 “엄마”가 되어 놀아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먹여 주는 일 등입니다.

봉사하는 회원들의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봉사가 끝나면 임원 기도회 모임을 갖고 헤어집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양·일산 회원들은 늘 주님의 여종으로서 쓰임받기 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안남**

준비하는 마음은 정성을 다하여

경재숙권사
(18구역 구역장)

우리 교회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예배 중 정성과 공경의 뜻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에 헌금위원들이 곱게 우리의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봉사를 하는 것이다. 치마 저고리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까지는 곱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 옥의 티라 할까? 그 치마 아래를 바라보면 그리 곱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 한복치마에는 흰 고무신이나 흰 버선을 신어야 하는데, 샌달에 맨발, 검정 구두에 양말, 슬리퍼에 양말 등을 신고 있어서 보기에도 정말 곱지 않다.

어쩌랴! 만약 우리가 청와대에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과연 …

아름다운 한복에 흰 고무신 하얀 버선이 아름답지 않을까? 혹시라도 외국인이나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에 아무 신발을 신어도 된다고 생각할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다는 뜻에서, 그리고 우리의 한복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한복을 입을 때는 흰 고무신과 흰 버선을 신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나님께서도 이 정성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 것이다.

만남 漫評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덕권 집사

미국에서 만난 하나님

이명숙 권사

2월 나는 남편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였다. 미국의 남부지방인 테네시주의 수도인 내쉬빌시였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곳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3년 동안 유학을 하였다.

5월 14일은 그들이 졸업을 하는 날이다. 졸업과 동시에 첫 취임지인 서부의 아리조나 주의 피닉스로 향했다. 졸업식에도 참석하고 이사도 도와줄 겸 3개월을 앞당겨 갔다. 이곳 내쉬빌은 종교의 도시이며 컨추리 음악의 본고장이다. 특히 침례교회의 본산지며 감리교단 본부의 4개 부서 중 2개 부서가 이곳에 있다. 이곳은 호수도 많았고 숲도 많았다. 그리스풍의 건축양식의 건물들이 많아 미국의 아테네라고도 불려지는 곳이다. 우리는 LA에서 내쉬빌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안은 백인들로 꽉 차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좌석을 찾아 좁은 통로로 걸어가는 동안 몹시 어색했고 웬지 모두가 우리만 쳐다보는 것 같았다. 이방인처럼 느끼고 있을 때 우리 뒷자리에 동양인 노신사 한 분이 먼저 앉아 있었다. 미소를 머금은 인자한 모습을 보는 순간 안도의 숨을 쉬었다.

5시간을 가는 동안 말 한 마디 건네지 않았다. 우리가 공항에 도착해서야 그 분이 한국인이며 목사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중 나온 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눈 후부터였다. 목사님은 이 곳 감리교단에 근무하시며 내쉬빌 한인 교회에서 시무하신다고 하셨다. 그 분의 인도로 우리는 그 이튿날 주일부터 내쉬빌 한인교회로 나가기 시작했다.

이 교회의 교인은 300여명, 서기종 담임목사님

은 밴더빌트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신학석사 학위, 드류대학교에서 교회사 전공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40대의 유능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다. 교회건물은 아담하게 지어졌으며 세 분의 장로님과 많은 남녀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반 신자에 이르기까지 서로 섬기며 각 기관마다 맡은 일에 충성하였다. 사랑과 말씀으로 굳게 서가는 교회였다. 모두가 친절했다. 우리가 간 얼마 후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였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마음 속에 새기기 위하여 전 교인이 참여하는 성경필사대회가 있었다.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였다.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도 참여했다. 금년 우리교회의 표어가 '경건한 생활의 연습' 이므로 새벽마다 말씀을 쓰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영안을 열어 달라고 간구하며 20여 일간 성경을 쓰는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다. 집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우매한 나의 모습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며 날마다 새로워짐을 느꼈다.

성가대에서는 부활절 칸타타 연습이 한창이었다. 마침 내가 속해 있는 영락교회 베들레헴 성가대가 금년 부활절 음악예배 담당이어서 몇 주 연습 중에 이 곳에 오게 되어 못내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4년 전 위암 절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에 다시 성가대에 서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날도 부활절이었다. 주께서 건강만 허락

하신다면 충성하리라 다짐하며 기도드리지 않았던가?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던 내게 새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았는가? 할 수만 있다면 늘 주의 성호를 찬양하리라 다짐하지 않았던가! 나는 용기를 냈다. 의사인 대장장로님과 지휘자께 부탁을 드렸다. 3개월 동안 함께 성가 대원이 되어, 부활절 칸타타를 함께 하고 싶다고 ….

중년의 여성 지휘자는 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317장 ‘어서 돌아오오’를 작사하신 故 전영택 목사님의 큰 자부이셨다. 지휘자의 허락으로 부활절 칸타타는 정성껏 준비하여 은혜 중에 잘 마쳤다.

어느덧 3개월이 지나 졸업식이 끝났다. 교회에서는 졸업 예배와 장로님댁에서 졸업생과 그 가족을 위한 멋진 축하파티까지 열어 주셨고 지휘자 댁에서는 그 동안 수고하다 귀국하는 세 분과 나를 위해 송별 파티를 열어주셨다. 떠나는 대원들에게 좋아하는 찬송가를 선곡해 한 곡씩 부르라고 하셨다. 나는 평소 좋아하던 317장 ‘어서 돌아오오’를 불렀다. 작사하신 목사님댁에서 부른다는 것이 기쁘고 감회가 새로웠다.

성가대원들이 준비한 선물과 카드도 주셨다. 헤어짐이 아쉬워 서로 악수를 나누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란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그곳 교회에서 영락교회 개척초기에 크게 활동하셨던 임형연 장로님과 차수복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상담부 임숙재 간사님의 부모님이다. 낯선 곳에서 영락교인을 만나 더욱 기뻤으며 머무르는 동안 내내 든든했다.

드디어 6월 1일 이삿날이다. 담임 목사님 내외 분께서 친히 심방해 주셨다. 기도와 말씀을 주셨다. 예배를 마친 후 우리는 정든 내쉬빌을 뒤로하고 아

리조나주를 향하여 3박 4일의 대장정 길에 올랐다. 미국 대륙의 동서를 횡단하는 40번 도로를 타고 6개주를 통과해야만 하는 긴 여정이었다. 하루 10시간씩 30시간을 달려야 했으며 다섯 식구가 돌아가면서 밤낮으로 운전하였다.

첫째날 밤 8시였다. 알칸사스주를 지나 오클라호마주에 막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천둥, 번개, 우박, 비바람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것만 같았다. 우박과 비바람은 달리는 차창을 세차게 내리쳤다. 우리는 몹시 무섭고 두려웠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하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내시듯이 우리의 가는 길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드렸다. 잠시 후 회색 먹구름으로 둘러싸인 사이로 한 줄기 강한 빛이 우리를 향해 밝혀 주었다. 분명 그것은 한국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의 세계였다. 주홍과 황금빛의 빛은 후광을 발하며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는 느낌을 받았다. 하늘 문이 열린 듯 예수님은 분명 저런 곳에서 빛으로 오시는 것이 아닐까? 40번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 동네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인 광경이었다.

오른쪽 동네는 너무 깁깝해서 천지를 분간할 수 없었으나 왼쪽 동네는 너무나 평화스런 모습이 은은히 비추는 그 빛 아래서 마치 천국 같았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얼마 후 뉴스에서 그 지역이 토네이도로 인해 비행기까지 추락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국에서 일기 변화가 가장 심한 곳을 우리 가족은 토네이도와 함께 통과했던 것이다.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히 임재하시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남

회소식

— 제24회 당회 세미나



9월 30일(목)부터 10월 1일(금)까지 양일간 제24회 당회 세미나가 열렸다.

첫째 날, 은퇴 원로장로와 대화를 시작으로 계속된 토의는 심야기도회와 새벽기도회를 거치며 그 열정을 더해 갔다.

둘째 날, 오후 당회를 끝으로 이틀간의 세미나를 마쳤다. 2000년도 표어는 '한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 (딤전 2:4)로 정했다.

— 바요나중창단

지난 9월 18일(토) 오후 6시 선교관에서 창단 1주년 기념연주회가 열렸다. 남성으로 구성된 바요나중창단은 합창과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저희 한동우 선생, 오르간 한은미 선생, 피아노 박남숙 선생이 혼연일체가 되었다. 또 여성으로 유일하게 구희정 선생이 소프라노 독창을 했다. 찬양 한



곡 한 곡이 불릴 때마다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바요나중창단은 주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이든지 찾아 갈 것이며, 그들이 부른 찬양은 분별과 상처 난 곳에 위로와 일치하는데 빛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세상을 향해 십자가 군병처럼 봉사와 선교에 힘쓸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 날 것이고, 끊임없는 사랑의 격려를 듣게 될 것이다. "바요나시몬아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 고적정리를 위한 고적열람 기간 설정 안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면에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 지난 세기의 묵은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 교회에서는 교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교적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성도 각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인 만큼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번 열람 기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대심방 받지 않은 가정, 99년에 한번도 구역장의 심방을 받지 않은 가정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적 확인 일시 : 1999년 10월 24일 주일, 31일 주일 (2회)

* 교적 확인 장소 : 봉사관 1층 로비

* 교적 확인 대상 :

- 1) 본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교적에 없는 분,
- 2) 출석하지 않으면서 교적이 있는 분,
- 3) 이사 등으로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나 수정하지 않으신 분
- 4) 결혼으로 분가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으나 수정하지 않으신 분

- 제1남선교회 금요기도회

제1남선교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선교관에서 김지철 교수(장신대)를 초빙하여 성경공부 지난 10월 1일부터 하고 있다. 김교수의 강의 내용은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성령세례와 소명, 성령과 사탄 등의 제목으로 11월 26일까지 계속 특별강의를 한다. 제1남선교회의 금요기도회는 에스더 중창단을 비롯하여 특별찬조팀의 출연으로 찬양으로 은혜를 더하고 있다.



- 제 84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9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본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84회 총회장에는 이규호 목사(경주 구정교회), 부회장에는 신정식 목사(순천 제일교회)가 선출되었고, 이번 총회의 최대 쟁점은 기구 개혁안을 비롯한 총회 각 부서와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것이었다. “총회기간동안 영락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과 전폭적인 협조에 감사한다”는 총회 관계자의 인사가 있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회소식

- 특별새벽기도회

주 제 : 회개와 부흥

일 시 : 10월 11일(월) - 16일(토) 오전 6시

강 사 : 이철신 목사

장 소 : 본당

- 문화사역팀(CCW) 뮤지컬 그룹 위트니스(MGW)의 창작 뮤지컬 '기쁜소식'

작년 10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작품으로 창단공연을 하고, 지난 4월 부활절에 '그 마지막 7일'이라는 작품으로 본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선사했던 문화사역팀의 뮤지컬 그룹 위트니스는 이번 10월에 본격 창작 뮤지컬 '기쁜소식'을 공연한다.

이 뮤지컬은 오랜 시간 기도하며 제작한 작곡가 차경찬 선생의 감미롭고 역동적인 17곡의 창작곡들을, '명성황후', '갬블러' 등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인정받은 경험이 있는 각종 대형 뮤지컬들의 음악을 감독했던 최무열 선생의 음악지도 아래 약 5개월 동안 땀흘려 연습하며 준비한 작품이다. 대본과 연출은 그 동안 창단부터 참여했던 유혜정 선생이 담당하고 있으며, 약 30여명의 출연진과 스텝들이 마지막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정을 따라 가면서 중요한 장면들을 연결지어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제작한 이 작품에는 극적인 요소들과 현대적인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이 돋보이며, 특별히 지극히 낮은 자로서 살고자 했던 바울의 선교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작품은 기독교 방송과 극동방송, 국민일보와, 낮은 울타리, 그리고 총회 사회부 산하 문화선교 연구원에서 후원하고 있다. 10월 21일(목) 오후 7시, 22일(금) 오전 10시 30분, 연합권찰 공부시간과 오후 7시, 그리고 23일(토) 오후 4시와 7시, 총 5회에 걸쳐서 50주년기념관 베다니홀에서 열리는 감동과 은혜의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관심을 바란다.

(문의 : 문화사역팀 2273-6301 교환 : 177번, 박용범 전도사 134번)

- 문화사역팀(CCW) 영화가 있는 목요쉼터

일 시 : 10월 28일(목)

장 소 : 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내 용 : 영화 '일 포스티노'를 성경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해 보고, 마친 후에는

차 한잔을 마시면서 쌓인 피로를 풀어보는 시간

- 교육주일

지난 10일 찬양예배시 교육부 주관으로 교육주일 행사를 가졌다. 본당에서 교회학교 교사, 교육부 연합 성가대, 학생들, 일반 교우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예배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교육부 연합 성가대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찬양을 하였는데 오케스트리를 방불케 한다는 교우들의 평가가 있었다. 교사 특송에 이어 한국교회 사상 처음으로 애니메이션 설교 시연이 있었다. 자체 기술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모두 컴퓨터로 제작한 것이다. 이어서 유치부 특송이 있었다. 교육주일 예배 후 새가족 환영 모임을 제 2식당에서 가졌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고 어느 교우는 교육주일 예배 소감을 밝혔다.

10월 교육부 행사 일정

10월 3일 소년부 백합음악제 10일 교육주간 31일 초등부정기음악회

- 채문경 파이프오르간 독주회

본교회 베들레헴성가대 오르간니스트 채문경 집사의 파이프오르간 독주회가 지난 9월 7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바흐와 한국오르간 음악을 주제로 시편 23편 외 한국음악 3곡을 연주하여 청중들을 감동시켰다.

- 대학부

초대합니다.

추수감사절, 대학부에서는 Home Coming Day 행사가 열립니다.

대학부 출신 선배님들과 제직들을 한자리에 모시고자 합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만남을 통해서 선후배간의 돈독한 사랑과 결속을 다지고자 합니다.

대학부 후배들이 정성을 담은 자리이니 관심과 격려, 그리고 기도를 아끼지 말고 많이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따라 시간과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 간 : 11월 21일 오후 3시

* 장 소 : 50주년기념관 4층

* 문 의 : 2273-6301 교 181번(교육부)

- 제23회 성가대 합창제

극동방송 주최로 제23회 성가대합창제가 10월 23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공연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본 교회 시온성가대를 비롯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도림교회, 중앙성결교회, 동안교회가 참가하며, 일본 다카사고교회와 극동방송, 그리고 아세아방송 어린이 연합 합창단이 특별 출연 한다.

회소식

— 주일설교 테이프 보급소 증설 —

본교회 강단 설교테이프 보급소가 정문 옆 보급소와 북문경비실에 개설되어 이곳을 출입하는 교우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홍보출판부는 자원봉사부의 지원으로 지난 9월 19일부터 50주년 기념관 외에 보급소를 늘려 주일설교테이프를 보급하고 있다.

— 청년부

한번의 클릭으로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세요.

* 대상 : 미혼의 청년이면 O.K

* 왜 : 결혼하기 위해

* 어떻게 : 클릭해 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http://www.icr.co.kr>)

전화문의 : 2273-6301 교환 : 128번 청년부 박준호 전도사

김성준 017-364-8511

* 회비 : 년 5만원

온누리 교회 청년들과 영락교회 및 몇 교회 청년들이 모여 이삭과 리브가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년부를 통하여 일정을 확인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다 모여라!!!

SM전도팀(Saturday Mission 토요일은 전도하는 날이란 뜻)을 운영합니다.

전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 6시까지

* 장소 : 50주년기념관 B200-5에서 매주 모입니다.

* 문의 : 2273-6301 교환 : 128번 청년부 박준호 전도사

청년부는 제2기 전도폭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야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다 모여라!!!

영락기도원 공사로 기도원 금요철야가 없어지므로 철야기도를 하던 소수의 청년들이 모여서 시작된 철야기도회입니다. 자체적으로 형성된 모임입니다. 비록 소수지만 뜨겁게 세계와 민족과 교회와 개인을 위해 기도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을 초청합니다.

* 안제 : 매주 금요일 밤11시 - 새벽 2시

* 어디서 : 50주년 기념관 201호

* 말씀은 : 현승학 목사, 박준호 전도사

- 영락교회 금요직장인 예배 창립 30주년

'직장인을 위한 금요정오예배'가 10월 1일 창립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금요직장인예배 창립 30주년 기념식은 직장인 찬양대·루디아선교회의 '할렐루야' 합창(지휘:이의용 장로), 이철신 담임 목사의 설교, 직장신우회 찬양대회 시상(영락교회 4등), 공로패(김명자 권사)와 감사패 증정(직장인들이 영락교회에) 있었다.



영락교회 직장인예배는 30주년을 기념하여 인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전도에 힘쓰는 한편, 9월과 10월 예배시 국악찬양팀, 발레팀의 초청과 직장사역자 간증 등 특별 순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예배는 1969년 교회 인근 직장인들을 위해 영락교회가 처음으로 설립하였는데, 매주 200명 정도가 모여 1부는 예배를 드리고, 2부는 친교시간을 갖는다. 영락교회의 직장인예배 신설로 현재 서울에만도 새문안교회, 서소문교회, 향린교회 등 20여 곳이 평일 점심시간에 인근 직장인들을 위한 예배를 마련하고 있다.

- 제주영락교회 당회원 본 교회 탐방

6·25 전쟁 때 세운 제주영락교회 당회가 새 천년과 교회 창립5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본 교회를 탐방하여 연수회를 가졌다. 지난 10월 7일 김정서 담임목사의 인솔로 19명의 당회원들이 본 교회를 둘러보고, 한진유 장로의 안내로 50주년기념관 당회실에서 교회 안내 및 50주년기념관 시설과 문화사역팀, 새가족부, 선교부, 젊은이예배, 청년부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관람했다.



- 고 이동훈 교수 유곡집 출간

10월 26일(화) 저녁 7시 선교관에서 한국교회음악발전에 공헌이 큰 이동훈 교수의 추모 25주기를 맞아 그가 30여년동안 이끌어 온 옛 필그림합창단을 중심으로 유곡집 출간기념음악회가 열린다.

- 사랑부 예배실 장소변경

교회학교 사랑부가 50주년기념관 207호 예배실에서 교육관 1층(구 유치원 건물)로 확장 이전하여 예배와 모임을 가진다.

회소식

-북한난민 보호를 위한 UN청원-

오늘날 수십만의 북한 주민이 아사의 위협과 박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인접국기에 흘어져 강제 송환의 공포 속에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음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각국의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더이상 이러한 비극을 좌시할 수 없으며, 또한 그들에 대한 사랑과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외면치 못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UN에 촉구하고, 전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일천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박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한 이들은 국경침범자가 아니라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이므로 이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들 난민들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케 하고 이들을 위한 난민보호시설을 적합한 장소에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 공조체제를 갖추자' 라고 호소한 지난 3월 5일 프랑스 지식인들의 선언문 취지에 찬동하고 이를 적극 지지 합니다.

영락교회는 인류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해온 UN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전교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부)

바로 잡습니다.

10월호 44쪽 '영락고등학교 교장 류현위 장로 퇴임' 기사 중 '영락고등학교'는 '영락상업고등학교' 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11월 목회력



5일(금)	연합권찰공부
	농산물판매
10일(수)	정기제직회
12일(금)	신임제직 및 기존제직 심사
19일(금)	심방준비회
21일(주일)	추수감사주일
28일(주일)	사회봉사주일 대강절
30일(화)	정기당회

역사의 순례 (189)



월드비전과 다비다모자원

1950년 한국전쟁 소식을 접한 밥 피얼스 목사는 종군기자로 한국에 들어와 부산에서 한경직 목사와 전쟁피난민들을 돋기 위해 숨 돌릴 틈 없이 바빴다.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고 생계가 어려운 미망인과 어린 자녀들을 돋기 위해 부산에 한국전쟁 후 첫 번 째로 모자원을 세웠다. 최초의 시설인 다비다모자원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 천막을 세우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생활을 했다. 지금도 월드비전은 영락모자원에 매달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진 :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한경직 목사이다.

영화 탁량



「공중 나는 새를 보라」 77cm x 49cm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마 6:26)

김정묵집사